

#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이 성 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 I. 서언
- II. 영산재 관련 儀文의 작법절차
- III. 水陸齋儀文의 구조와 특성
- IV. 영산재와 수륙재 비교
- V. 결어

## [요약문]

2013년 수륙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수륙재는 영산재의 하위의식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은 두 의례의 성격과 관계를 찾아보고자, 그간 이와 관련된 제 논문의 논구와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와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당해 의문들을 수집·분류한 다음 구조 등을 분석하여 두 의례의 성격과 관계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산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영산재는 <영산작법>의 異稱으로 참법이나 『묘법연화경』을 염송하는 영산법석의 절차로서, 적어도 16세기 이후에 국내에서 정형화되었으며, 선왕·선후의 기신일이나 칠칠재 등에서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영산의 부처님을 청해 공양[供養]을 올리고 경전을 염송하며, 아울러 하단에 시식을 하는 추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재가 추천을 목적으로 설행되었지만 『묘법연화경』을 염송하거나 예참을 실천하는 상구보리의 자력적인 수행의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법계의 일체 고향을 청해 음식을 베풀고[施食] 왕생극락을 빌어주는 수륙재는 일찍이 중국에서 성립되어 10세기경부터 국내에도 개설되었다. 그 의문이 발달과정을 겪은 영산재에 비해, 수륙재는 중국의 남북 두 계통 의문을 당시 실정에 맞도록 요점만을 간추리거나 새로 편집하며 설행하였다. 이후 칠칠재를 수륙재로 병행하면서 칠칠재 사이에 행해지던 법석이 수륙재에 합편되는 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영산·수륙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륙재에 영산작법이 함께 설행되지만 수륙재는 시식에 주목적이 있다. 해서 수륙재는 財施·無畏施·法施의 三檀이 베풀어지는 하화중생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결국 『묘법연화경』 독송과 ‘공양’이 중심인 영산재와 고향의 ‘시식’이 중심인 수륙재는 ‘상향’과 ‘하향’이라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의 역할이 보완된 형태로 설행되고 있다. 상향의 ‘공양’과 하향의 ‘시식’을 하는 영산재와 수륙재는 ‘왕생극락을 위한 추천의례’라는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상호 보완되어 유사해져 ‘영산수륙재’라고 불리게 되었다. 영산재에 하단 시식이 행해지고, 수륙재에 영산법석의 양태가 행해지게 된 것은, 곧 처해진 상황에 對機적으로 對處하며 융합하는 역동성과, 끊임없이 불타의 本懷를 추구하려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두 의례에 대해 先後와 上下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영산재, 수록재, 결수문, 중례문, 지반문, 작법절차, 영산회

## I. 서언

영산재는 1973년 11월 5일 문화공보부에 의해 ‘범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87년 11월 7일에는 범패 작법 장엄 등을 포함한 마당종목으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9월 30일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대표적 무형문화재<sup>1)</sup>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9일 삼화사(동해)·진관사(서울)·백운사(마산)에 전승(?)되는 수록재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마당종목 125호·126호·127호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동년 3월 14일 ‘수록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가 되자, “수록재는 영산재의 일부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지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불교 의식이 아니다<sup>2)</sup>”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수록재가 영산재의 일부 의식’이라는 지적이 타당한지, 수록재가 영산재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불교의식이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영산재와 수록재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산재에 대해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이라 칭함)의 설주이신 석존과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운집한 영산회상의 모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sup>3)</sup>이라거나, ‘망인의 추전을 위한 의식의 하나’라거나<sup>4)</sup> ‘일반적인 사시불공의 확대 개념’<sup>5)</sup>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수록재에 대해 ‘수록재가 영산재와 같은 절차임을 밝히거나’<sup>6)</sup> ‘조

1) 沈祥鉉, 「靈山齋 成立과 作法儀禮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威德大學校 大學院, 2011), pp.1~2.

2)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성명서, <한국불교신문>, 2013.5.4일자.

3) 심만춘, 『영산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p.8.

4) 洪潤植, 『佛敎儀式』(文化財研究所, 1989), p.335.

5) 헤일명조, 「수록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제언」, 『삼화사 국행수록대재의 전승양상과 발전 방향』((사)삼화사국행수록대재보존회·한국불교민속학회, 2014), p.65.

6) 金熙俊,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湖西史學』30집, 湖西史學會, 2001.

선 전기는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도 수륙재와 영산재는 분명 다른 의식 절차'7)라고 하거나 의례 실행 일반에서는 수륙재를 영산수륙재8)라고 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영산재와 수륙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자의 관계는 어떤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수륙재 의문의 구조와 '법화참법 의례가 천도재인 영산재로 전이돼 가는 과정'9)이라는 의견을 전제로 하여, 그 참법과 법석의 차제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에서 <영산작법>으로 <영산회작법>으로, <영산재>로 변천되는 과정에 등장하는 <영산작법> 관련 의문의 성격과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을 파악해 보기 위해 먼저 현행 영산재로 형성돼 오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이는 참법과 법석 등 영산재 관련 의문의 작법절차의 변천 과정과 성격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한국수륙재에서 찬집된 주요 수륙재 儀文을, 요점 위주와 영산작법이 합편된 영산 합편 의문으로 나누어 그 구조와 특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두 재의 구조와 특성, 실행 목적과 성격 등을 통해 두 의례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논변을 통해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뿐만 아니라 두 의례 속에 담긴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한국불교의 특징이 없으므로 한국불교가 없다'10)고 극언하는 이들의 인식을

7) 沈曉燮, 「朝鮮前期 靈山齋 研究」, 박사학위논문(東國大學校 大學院, 2005), p.26, 주)56.

8) 현재 대한불교천태종이나 총화종에서는 영산수륙대제를 병행하고 있다(<법보신문>, 2014.12.2.일자 ; <주간불교> 2004/09/24). “영산재의 그늘에서 나뉘 불교의식을 실행해온 학자와 법패승은 금번, 수륙재의 국가지정을 시기라도 하듯이 수륙재를 영산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영산수륙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고 하지만(혜일 명조, 위의 글, p.61), 수륙재를 행하는 일반에서는 수륙재를 영산재, 수륙영산재라고 부르고 있으며, 127호로 백운사 수륙재는 지방문화재일 때는 영산재였다.

9) 沈曉燮, 앞의 글, p.51.

10) 고영섭은 『한국불학사』(연기사, 1999, p.18)에서 한국불교의 회통성과 총화에 대해 단순

개선해 주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영산재 관련 의문의 작법절차

‘영산재’라는 명칭이 한국불교의문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釋文儀範』 제공편의 <영산작법>을 영산재라고 약칭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의 반론으로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의 협주 “齋前如上靈山齋後鳴鈸喝香”<sup>12)</sup>을 제시하지만<sup>13)</sup> 이 구절은 “齋前如上靈山; 齋後鳴鈸喝香: 재(점심공양) 전에 위에서와 같이 영산작법을 하고 점심 공양 뒤에 바라를 울리며 할향을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수록재의 <雲水壇作法> 실행에 대한 지문이다.<sup>14)</sup> 이 장에서는 ‘영산재’라는 형식이 성립되는 과정이 보이는 의문인 예참과 법석의 작법절차 등을 중심으로 영산재 구조의 형성과 변천, 성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예참과 법석

조선후기 이래 한국불교수행은 염불·간경·참선의 三門수행으로 정리된다.<sup>15)</sup> 이 중 看經은 경전을 보는 것인데, 의식으로는 <금강경계청> <천수다라니계청> 등의 啓請法과 예참의식이 있다. 참회와 송경의 예참의식은 각 종파에 따라 자신들이 宗旨로 삼는 경전에 소재하고 있는 불보살님을 청해 예경하며 참회하며 선을 닦는 수행의식으로 약간의 차이

---

물리적인 중함에 불과한 비빔밥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불교의 특성을 화학적 곰탕에 비유하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해 계청회와 유불도와 문사철의 씨실과 날실이 삼투되어 선교화회(禪敎和會)로 수놓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고의 전개는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특성을 증명하는 한 논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11) 李英淑, 「조선후기 과불탱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p.77.

12)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韓佛全』 11), p. 478중.

13) 沈曉燮, 앞의 글, pp.12~13.

14)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한국선학회, 2013), p.259.

15)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p.218.

가 있다. 천태 지의의 『법화삼매참의』(이하 『법화참의』)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조선 초기에는 추천을 위한 법석이 성행되었다고 보이며, <法華>·<華嚴>·<三昧懺>·<楞嚴>·<彌陀>·<圓覺>·<懺經> 등의 法席이 행해졌다.<sup>17)</sup> 이 법석은 “죽은 사람을 위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칠칠재를 올리고 그간에 법석을 열어 빈소에 불상을 놓고 승려를 맞이하여 도량이라고”<sup>18)</sup> 하는 것으로 칠칠재 기간 중에 분속시켜 5일간에 걸쳐 행해졌다. 가령 태조의 칠칠재에 1재의 법석은 <참경법석>, 2재의 법석은 <진언법석>, 3재의 법석은 <참경법석>, 4재의 법석은 <화엄삼매참법석>, 5재의 법석은 <능엄법석> 6재의 법석은 <원각법석>, 7재의 법석은 <법화삼매참법석>이 설행되었다.<sup>19)</sup> 법석은 1420년 태종의 명에 의해 공식 폐지되었지만, 법석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불서 간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법석은 끊임없이 설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0)</sup>

그런데 <법화삼매참법석>이 『법화참의』로 행해졌는지, 『법화경』 염송으로 진행되었는지, <화엄삼매참법석>의 의문이 무엇인지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향후 간행된 불서나 책권 등을 참조해 볼 때<sup>21)</sup> <참경법석>은 『자비도량참법』 10권을, <법화삼매참법석>은 『법화참의』보다 『법화경』 독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천지명양수륙재의 범음산보집』(1723) 2일차에 ‘의문대로 화엄작법을 하고, 한 쪽에서는 <예참작법>을 의문대로 한다. 이후 명발 할향 등은 『영산대회작법절차』의 차서로 현좌·다게·향화계송

16) 『法華三昧懺儀』(T.46), p.950a.

17) 『세종실록』 권9, 2년(1420년) 9월 24일(기축) 7번째 기사.

18) 『태종실록』 권24 12년(1412) 10월 8일조

19) 『태종실록』 권15, 1408년 6월 9일조.

20) 이후 인수대비의 印經佛事, 나암보우(普雨, 1509?~1565)의 수록재와 법석의 疏와 부휴(1543~1615) 선사의 ‘印華嚴經兼水陸疏’ 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pp.173~175),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상(p.373)에서 재인용.

을 하고, 이후 대중은 연화경을 독송한다.’<sup>22)</sup>라고 하는 예문의 제시를 볼 때 <법화예참법석>은 『법화경』염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은 『법화경』을 염송하는 법석으로 영산회상을 구현하는 <영산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산법석>의 행태가 어떠한지, 언제부터 설행되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천태종의 ‘知禮(960~1028)가 延慶도량을 진설하였고, 遵式(964~1032)이 靈山법석을 건립하였다’<sup>23)</sup>는 기사는 도량과 법석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설행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도량’은 외호의 범용으로 곧 재앙의 소멸에, 법석이나 법회는 내외의 반야를 선양하는 것이라는<sup>24)</sup> 견해를 수용하면, <연경도량>은 경사를 연장하고자 하는 소재길상의 도량일 터이고, <영산법석>은 영산회상의 법회로서 『법화경』을 염송하는 법석이었을 것이다. 이 예로 볼 때 도량과 법석은 소재와 길상의 의식으로 불가분리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예참의식들에는 『법화참의』 등에서 볼 수 있는 10문<sup>25)</sup> 구조가 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예참’이라고 하지만 참회의식조차도 없다. 그나마 ‘예참’이 나타나는 한국불교 의문에는 <관음예찬><sup>26)</sup>이나 『범음산보집』의 <선문조사예참><sup>27)</sup>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록의문에는 예참이 등장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례문』으로 수록재를 행할 때는 2주야에서 예참을 겸하고 있고,<sup>28)</sup> 『지반문』의 12단 배치 차례(례)규식에 의하면 대중이 운집하는 중회일 한

22) 智還 集, 『범음산보집』(한불전.11), p.508.

23) 宗曉(1151~1214) 編, 『四明尊者教行錄』卷第一(T.46), p.856b. “一曰法智師(諱知禮, 960~1028) 一曰慈雲師(諱遵式, 964~1032) 法智尸延慶道場 中興此教 時稱四明尊者 慈雲建靈山法席 峙立解行 世號天竺幟主”

24)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운주사, 2006), p.517.

25) 『法華三昧懺儀』(T.46), p.950a. ①嚴淨道場, ②淨身, ③三業供養, ④奉請三寶, ⑤讚嘆三寶, ⑥禮佛, ⑦懺悔, ⑧行道旋遶, ⑨誦法華經, ⑩思惟一實境界.

26) 안진호 편, 『석문의범』 상권(만상회, 1935), pp.39~54.

27) <禪門祖師禮懺>(한불전.11), p.493.

28) 智還 集, 『梵音刪補集』(한불전.11), p.491상.

쪽에서 예참을 하고 공양을 올리며 축원을 하고 있다.<sup>29)</sup> 또 3권『仔變文』 <三晝夜 作法規式>에 의하면 중회일 다음날에 <대영산작법> 이후에 한 쪽에서 예참을 하고 있다.<sup>30)</sup>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칠칠재 사이에 개설된 법석은 예참과 염송으로 일정한 절차로 행해졌고, 수록제와 함께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작법과 영산회

### 1) 『작법절차』(1496)

현재 작법이라고 하면 ‘작법 춤’에 한정된 용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작법은 법식을 짓는다는 뜻으로 의례의 행위를 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석에서 행해지는 의문으로 보이는 『작법절차』는 1496년 학조에 의해 훈민정음 풀이와 함께 간행되었다. 앞에는 『진언권공』이, 뒤에는 『삼단시식문』이 합편돼 있다. 세 의식을 『진언권공』이라고 서명을 부여해 놓았지만 『진언권공』은 일종의 사시마지이고, 『작법절차』의 ‘공양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차서는 다음과 같다.<sup>31)</sup>

할향, 연향계, 할축, 연등계, 할화, 서찬계.

삼귀의 지심신례 불타야중 ~

개계문 法筵光啓~

관음청 후 가지 삼청 후 쇄수계, 엄정계

차 거불

이 『작법절차』의 ‘거불’에는 의미 있는 정보가 있다. ‘법화즉’, ‘화엄즉’, ‘참경즉’, ‘미타참즉’, ‘지장경즉’<sup>32)</sup>이 그것이다. ‘~인 즉’이라는 것으로,

29) 智禪 撰, 『五種梵音集』(한불전.12), pp.168하~169상

30) 智還 集, 『梵音刪補集』(한불전.11), p.522중.

31) 『眞言勸供』(의총.1), pp.441~451.

32) 『眞言勸供』(의총.1), pp.451~452.

바로 앞까지의 의식은 동일하지만 이후부터는 ‘당해 경전의 염송’에 따라 거불을 달리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다섯 종류의 거불 사례는 法席에 행해지는 <法華> · <華嚴> · <三昧懺> · <楞嚴> · <彌陀> · <圓覺> · <懺經>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이 『작법절차』는 각 법석을 열기 위한 ‘작법의 절차’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진행은 『작법절차』가 경전염송의 법석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거불이 끝나고 나면 拈香을 하는데, 법사가 시간에 따라 (의문을) 지어서 진술하라고 하고 있다. 뒤이어 개경계송과 개법장진언이 이어진다. 그리고 회주가 경전의 제목을 해석해주고 (대중이) 함께 염송하며, 불타야중 · 달마야중 · 승가야중의 삼보에 절하며 자비로써 법회에 강림할 것을 청한다. 헌좌계송과 진언을 하고, 奠物을 올리고, 바라를 올리며, 법회가 이뤄지게 된 연유를 아뢰는 疏文을 읽고, 전물에 가치를 청하는 표백과 사다라니로 이어지는 變供을 한다. 그리고 육법공양과 각집계(향화계)로 공양을 올리며 공양을 받으실 것을 청한다. 찬탄을 하고, 보공양진언과 보회향진언으로 공양을 마친다. 이어 반야심경을 염송하며 요잡을 하고 화엄경 정행품의 <자삼귀의>의 서원을 하고 바라를 올리며 축원을 한 다음 삼회향으로 의식을 마친다.

만일 <법화법석>을 열었다면 “지심귀명례 구원겁중 성등정각 상주영산 설법화경 아본사 석가모니불”로 마치며 唱魂을 하고, 시식으로 마친다. 이어 『삼단시식문』이 배치되었다. 이 편제는 현 영산재의 선행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와 수록재 『결수문』의 ‘축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단시식문』<sup>33)</sup>을 연이어 편제하여 영산 · 수록재의 선후와 인과 관계 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제 법석의 공통의문이 『작법절차』라고 볼 때 마지막에는 5거불 가운데 ‘법화즉’<sup>34)</sup>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이 이미 중요

33) 『삼단시식문』은 관음보살의 천수심주 “옴 아로 스바하”를 도량을 엄정하고 발보리심진언을 하고 상위소청으로 들어간다.

34) 『眞言勸供』(의총.1), p.469.

한 법석으로 자리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다.

## 2) 『영산대회작법절차』(1634)<sup>35)</sup>

『진언권공』·『작법절차』·『삼단시식문』의 편철, 『작법절차』 이후에 『삼단시식문』을 합편한 것은 의식의 순서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영산대회작법절차』는 『작법절차』보다 1세기 이후의 본으로, 명칭에 ‘영산’과 ‘대회’가 부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구성이나 5종의 거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작법절차』와 다르지 않다. 하나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현재의 영산재와 유사하다. 가령 『작법절차』에는 할향·할축·할화가 1수이지만, 여기는 할향이 3수, 할축이 2수, 할화가 2수 등장한다. 도량업정을 위한 관음청도, 『작법절차』에서는 동일 구문으로 삼청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세 구문으로 삼청하고, 거불 이후 ‘청불’도 소문 이후 3정례청과 사부청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小禮單請佛’의 행법을 부가하고 있다. <소례단청불> ‘즉’이라고 하여 소례로 간단히 불보 등을 청하는 행법이다. 소문과 3정례, 사부의 청을 생략하고, 계송과 ‘나무불타부중광림법회·나무달마부중광림법회·나무승가부중광림법회’로 간단히 절하며 청하고 헌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영산재에서는 청불과 삼정례, 사부청도 하고 연이어 소례단청불도 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을 외면한 중복이라고 할 수 있다. ‘광례’와 ‘약례’의 예로<sup>36)</sup> 제시된 의문이었지만 이 <소례단청불>의 잔영은 현재 <삼보통청>의 거불로 남아 있다.<sup>37)</sup>

개경계·개법장진언, 擧揚 이후 설법과 講法의 두 형태로 분명하게 나눠놓은 것도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독경이든 설법이든 이를 끝마치고

35) 『靈山大會作法節次』(의총2), pp.129~153. 표제는 ‘供養文’이며, 1613년 안흥사판이 선행 판본이고, 후대 1764년에는 경상북도 선산 도리사에서 동일 판본이 간행되었다.

36) ‘見機而作’은 대소의례의 선택에서부터 광례와 약례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37) 현재의 거불은 청사인데 거불로 행해지므로 광림법회를 법회에 ‘광림하실’로 이해하는 궁색한 제의를 하였었지만(이성운,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108~113) 당해 법회에 걸맞은 거불로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무랑계송으로 귀명[절]하며 당일 재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왕·선후와 선망부모와 법계망혼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영산교주 석가모니 불에게 지심귀명례하고 난 다음 삼전축원으로 재회를 마친다. 이 발원으로 볼 때, 영산작법은 선왕·선후의 기신일 등에 행한 법석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이어 ‘追薦則’이라고 하여 추후 천도하게 되면 변식과 육법공양과 각집계 등으로 공양하고 보공양·보회향진언으로 마친다. 이어 ‘추천재즉’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로 보면 <영산작법>과 이후의 <추천재>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재의 염송은 개경계 이후 ‘誦蓮經’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연경(『법화경』) 염송을 마치면 보결진언을 ‘삼편’ 한다. 추천재가 법석으로, 3일 또는 7일에 거쳐 행해질 때 『법화경』 7권을 나날이 염송하지만, 당일에 ‘연화경’을 다 읽지 못하므로 보결진언을 염송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작법절차』에는 『삼단시식문』이 곧바로 합편되어 있지만 이 『영산작법절차』에는 <소례결수작법절차>,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가 합편돼 있다. 『작법절차』 후편 『삼단시식문』 자리에 세 수록의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세 의문은 당해 수록재의 규모(소·중·대)에 따라 선택돼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제시된 『결수문』·『중례문』·『지반문』에는 앞에 있는 『작법절차』의 ‘절차’가 요약돼 실려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됨) 순수 수록의문의 그것과 달리 세 의문에 <영산작법절차>를 그대로 합해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세 수록의문은 순수한 수록의문이 아닌, <영산작법>이 포함된 ‘영산수록’이 되었다. 필자는 이 연유에 대해 ‘실제의 반영’이라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조선 초기만 해도 수록재로 봉행되는 칠칠재 사이에 행해지던 법석이 1420년 공식 폐지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와 규모로라도 행해졌다고 보인다. 그 결과 여타 법석이 <영산법석>으로 정형화되는 것과 동시에 수록재를 위해 실행되는 법석이 자연스럽게 수록재에 합편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만 수록재에서 外壇의 독경의식이 그대로 행해

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해서 수록재의 선행의식이었던 법석이 <영산작법>으로 특화되면서 수록재에 합편하게 된 것은 영산작법과 수록재가 함께 행해지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sup>38)</sup>

이에 따라 수록재에서도 부처님을 모시는 시련의식을 봉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례 현실의 반영이라는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중국의 대만 등지와 다른 한국적인 사고의 반영으로 한국불교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五種梵音集』(1661), 『新刊梵音刪補集』(1713),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1709, 1723, 1739) 등에도 이 같은 편제의 의문이 이어진다.

### 3) <영산회작법><sup>39)</sup>

영산재의 선행양태를 보이는 의문들이 ‘작법절차’·‘영산작법절차’·‘영산작법’ 등으로 칭명되던 것이 18세기에 이르러 ‘영산회작법’이라고 불리게 된다. 앞의 『영산작법절차』와 다른 점은 ‘영산회’라는 명칭처럼 ‘영산작법’ 거불만이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산대회작법절차』는 ‘대회’라는 이름처럼 찬탄 계송이 2수·3수이지만 이곳에는 『작법절차』(1496)의 그것처럼 단수이거나 단일 구문으로 3칭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도량을 엄정하게 한 다음 이어지는 거불 앞에 『오종범음집』의 찬불계송(塵點劫前早成佛 巍巍德相月輪滿 爲度衆生現世間 三有聚中作導師)<sup>40)</sup>을 ‘動佛偈’라고 칭명하며 추가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18세기 초반의 『범음산보집』에서는 <괘불이운의식>으로 새롭게 편집되게 된다. 그런데 묘현산 보현사에 간행된 이 의문에는 <괘불이운의식>이 별도의 의문으로 행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불계송으

38) 이에 대해 사시마지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시마지 의식은 간편한 『진언권공』(1496)이나 현재의 <사시마지>에서(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 2001, pp.52~54) 볼 수 있듯이 <영산작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39) 『新刊刪補梵音集』(의총.2), pp.584~590.

40) 『五種梵音集』(한불전.12), p.157하.

로 거불의 행위적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보인다. 괘불이운의식, 곧 <상(上位)시련>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곳에서의 의식은, 후대 영산재에서 구현되는 선행양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灌沐의 목욕의식을 하고, 예경을 드리고, 공양을 드리고, 설법이 행해진다. 이어 선왕선후와 선망부모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하위의 존재를 위한 시식으로 들어간다. 전반적인 구조는 『영산대회작법절차』와 다르지 않고 현 영산재<sup>41)</sup>의 그것과 진배없다. 다만 <영산회작법>에는 아직 <식당작법>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영산회작법> 뒤에는 <중례작법절차> · <지반작법절차> · <결수작법절차>가 합편돼 있다. 『영산대회작법절차』의 후편과 달리 <중례작법절차>를 먼저 삽입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sup>42)</sup> 이후 『석문의법』의 <영산작법>에 이어 현재의 『영산재』 형식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수록재의문의 구조와 특성

일체의 고흠을, 4聖 6凡과 함께 초청해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들려주는 수록재의 원형 의문으로는 중국불교의 남 수록 계통인 송 志磐의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6권)나 북 수록 계통인 楊諤의 『天地冥陽水陸儀文』(3권)<sup>43)</sup>이 있다. 그런데 高麗 일연의 제자 混丘(1251~1322)가 <신편 수록의문> 2권을 새로 편찬한 것은, 중국의 원형 수록의문으로 수록재를 설행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록재 의문의 형성은 필자의 선행 논문과<sup>44)</sup> 여타 논문 등<sup>45)</sup>에서 다루졌다. 필자는 앞의 글에서

41) 『영산재』(심상현 글, 2003)의 형식을 현 영산재라고 설정할 수밖에 없다.

42) 설판규모에 따라 선택되는 세 수록의문이라고 한다면 편철 순서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수록재 소리를 범패 보유자 봉원사 송암 스님으로부터 『중례문』 소리를 배웠다고 조계종 어장 동주 원명 스님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과 그 어떤 일치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록재』(대한불교조계종, 2010), p.14.

44) 이성운, 「현행 한국수록재에 대한 검토」, pp.263~268.

45)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pp.20~21.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조해 한국수륙재 의문의 성립과 간행시기 등에 대해 추론하였는데,<sup>46)</sup> 이를 ‘요점 위주 수록의문’과 15세기 이후 수록재 의문에 작법절차가 합편된 ‘영산 합편 의문’으로 나누어 그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要點 爲主 儀文

### 1) 의문의 개요

‘要點 爲主 儀文’은, 죽암 猷 승려에 의해 纂要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권, 『中禮文』으로 불림)<sup>47)</sup>나 수인이 있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結手文』으로 불림)<sup>48)</sup>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찬요’ ‘촬요’와 같이 중요한 곳만 뽑아 편찬한 의문을 지칭하는데, 이 두 의문은 14세기 중반 초판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49)</sup> 요점 위주 의문은 간편하게 의례의 요점만을 모으거나[纂] 취하고[撮] 있는 것으로 볼 때 의례의 원본은 따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원본은 중국의 두 의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원본에서 요점만을 모으거나 취해 『중례문』과 手印圖와 印法을 함께 실은 소본의 『결수문』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6권)를 축약해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권제일, 『志磐文』이라 불림)<sup>50)</sup>를 한국불교인들은 찬집해 냈다.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가 송의 志磐에 의해 重訂되고, 명 株宏에 의해 補儀되고, 청 儀潤에 의해 彙刊된 것이 광릉 후학 法裕에 의해 增補儀略되는<sup>51)</sup> 등 확대 增註의 과정을 걷는 중국수륙재의 의문과는 다르게

46)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pp.266~267.

47) 『중례문』(의총.2), pp.217~249. “所有印契等法具載小本此重錄.”(의총.2, p.217하), 이 구절은 『중례문』이 『결수문』보다 먼저라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8) 『결수문』(의총.2), pp.623~648.

49) 고상현,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p.14; 줄고, 앞의 글, p.263.

5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의총.1), pp.575~620.

51)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中華民國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p.27.

한국의 수록재의문은 간소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요점 위주 의문은 서로 다른 계통의 수록의문이라고 보이는데, 상·중·하의 삼위에 대한 소청·공양·봉송이라는 표면적인 구조는 같으나 소청 규모의 대소(大小), 아뢰는 말의 표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필자는 『결수문』이 한국불교 수록재의 정통 의문일 것으로 추측했지만,<sup>52)</sup> 세 의문은 재회의 설판 상황에 따라 “견기이작”<sup>53)</sup>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인다. 1713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新刊刪補梵音集』의 <會主證師引迎儀>의 다음의 ‘협주’와 간행사례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범음을 아는 이가 회주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엎드려 묻는다. “작법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회주는 명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명하고 없으면 “사례에 의지해 하라.”고 말한다. 범음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물러간다.<sup>54)</sup>

이 사례는 당일 재회의 규모, 재물의 대소 규모에 따라 의문이 선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sup>55)</sup>

또 다른 예로는 『지반문』·『중례문』·『결수문』 등의 간행의 사례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결수문』과 『중례문』이 같은 해에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사례가 아홉 곳, 가까운 해에 같은 지역에서 간행된 사례 네 곳이 조사되었다.<sup>56)</sup> 이후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52)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제에 대한 검토」, pp.263~268.

53) 흔히 견기이작은 소리와 작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어떤 법식의 요집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광의로 볼 때 견기이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54) 知梵音 趙進會主前 拜伏云 “作法何以爲之” 會主如有可命之事命之無則云 “依例爲之” 梵音 唯唯而退. 『新刊刪補梵音集』(의총2), p.581.

55) 이성운,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에 대한 논문문>(한국정토학회, 제17차학술대회 『조상신앙』, 2014. p.98)에서 ‘재의 경제학’이라 하며 언급하였다. 이는 현재에도 유의미하다.

56) 『결수문』과 『중례문』을 동년 동지역에 간행한 사례로는 1529년 무량사, 1538년 광흥사, 1574년 송광사, 1604년 능인암, 1634년 대흥사, 1659년 서봉사, 1660년 흥국사, 1661년 신흥사, 1694년 해인사 등 아홉 사례가 보이고; 근년 동일지역 간행 예는 1513년, 1514년의

것이다. 가령 특정 지역이나 사찰에 따라 의문이 『중례문』이나 『결수문』으로 정해져 봉행되었다면 다른 계통의 의문을 굳이 함께 간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록재 의문은 당해 당일 법회도량의 재 규모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세 의문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수록재가 고정화되지 않았으며, 의례 실행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廣略<sup>57)</sup>의 對機已設과 같은 것으로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며 특수한 한국불교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 2) 構造와 次序

의례의 보편적인 구조는 의례의 대상을 불러 청하고(召請), 의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공양을 올리고(供養, 娛神), 소원을 빌고 마지막에는 청했던 대상을 돌려보내는 송신(送神, 奉送)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불교의례라고 해서 보편성과 거리가 있을 수 없다. 단지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하며, 다양한 단계가 시설될 뿐이다.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은 대·중·소의 규모이다. 그런데 한국불교 일반에서는, 세 의문에 대해, 한국불교에서 부여한 『지반문』은 44편, 『중례문』은 54편, 『결수문』은 35(7)편의 편수에 의거해, 대소(大小)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 여기서의 대소(大小)는 편수가 아니다. 상위·중위·하위의 소청을 도청으로 하느냐, 통청으로 하느냐; 상위와 중위에 봉육의식을 행할 것인가, 상위 중위에게 소청과 동시에 공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위까지 소청하고 공양할 것인가, 아니면 하위까지 소청

---

대광사, 1566년 1565년의 보원사, 1573년 1579년의 덕주사, 1581년 1580년의 서봉사 등 네 곳이 발견된다.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p.64 ;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판본고』, 『서지학보』 제37호(한국서지학회, 2011), p.31 ;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pp.173~175),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상(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p.373)에서 재인용.

57) 廣略의 예는 수없이 많지만 간단한 예로 “夜短則運心偈呪云, 從容則香羞羅列云云” 등이 있다.

을 하고 공양할 것인가 등의 차이에 기인된다. 44편의 『지반문』이 54편의 『중례문』보다 그 의문의 양이 길다.

『지반문』은 상위 17청 혹은 3삼보도청, 중위 28청, 하위는 증명청 포함 25위청이고; 『중례문』은 상위 3삼보도청, 중위 3삼신도청, 하위 증명청 포함 25위청이며; 『결수문』은 상위 1삼보도청, 중위 1삼신도청, 하위 1삼 혼도청으로 진행되며, 하위에는 증명청이 없다.<sup>58)</sup> 이 세 의문대로 실행하면 소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해서 『오종범음집』에서는 <영산작법>을 위해서는 중회일 전날 축시(오전 2시)에 풍백단을 시작하고, 『중례문』은 미시(오후 2시)에, 『결수문』은 신시(오후 4시)에 시작한다고 주석하고 있다.<sup>59)</sup> 이때 보청을 하여 대중을 모은 후 어산은 가장 먼저 품수의 예를 하는데, 작법에 대해 문의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결수문』의 구조와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소청을 하기에 앞서 몸과 마음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사전의식으로는 정삼업진언, 계도도장진언, 삼매야계진언에 이어 嚴淨八方의식으로 개단진언, 건단진언, 결계진언과 발보리심진언을 한다. 이어 분향진언으로 사자를 청해 편지를 전달하는 의식과 오방오제에게 오방의 길을 열어 달라고 청하고, 다음은 上位의 삼보를 청한다. 이때 세 진언이 활용되고 유치를 한 다음 불보·법보·승보를 도청한다. 현좌하고 간단한 茶湯을 올리고, 대중은 삼보에게 예를 올린다. 다음은 中位를 청하는데 진령계송과 세 진언으로 청하고 나서 유치와 三神을 都請으로 삼청한다. 중위의 존재들은 상위의 삼보에 예를 갖추게 하고 현좌하고, 하위의 존재들을 청하게 된다.

下位의 존재들을 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옥을 깨는 진언들을 염송한다. 그리고 제왕 제후와 문무 관료를 비롯하여 일체 인륜과 당해 영가와 타방세계의 제 유정을 한 번에 都請하고 목욕을 하게 한다. 다음은 새 옷

58) 『지반문』(의총.1, pp.575~620); 『중례문』(의총.2, pp.217~249); 『결수문』(의총.2, pp.623~648).

59) 智禪 撰, 『五種梵音集』(한불전. 12), p.157중; p.163중; p.167상.

을 입혀 상단의 삼보에게 인사를 드리게 하고 자리에 앉힌다. 이어 상단을 향해 공양의식을 시작한다. 上位의 공양을 위해서는 가지변공의 정법계진언과 변식진언 출생공양진언의 變供眞言이 활용되며, 현향·현등 등 7종의 공양을 바치고, 운심공양진언으로 상위공양을 마친다. 中位の 경우도 운심공양진언에서의 所禮가 달라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와 같다.

그런데 下位 존재의 공양을 위해서는 먼저 聖號를 들려주어 두려움 등을 없애주고 나서 십이인연진언과 멸업장진언·해원결진언 등으로 하위의 존재들에게 인연의 실상을 깨달아 업장을 소멸하게 한다. 그리고 변공의식인 변식진언·시감로수진언·수륜관진언·유해진언을 하고, 시아귀식진언과 보공양진언으로 고힌으로 하여금 흠향하게 한다. 이어 고힌의 업장을 참회하게 하고, 사홍서원으로 발원하게 하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오계를 주고 육바라밀을 닦게 한 다음 다시 觀行 계송으로 제법의 실상을 깨닫게 한다. 이어 회향계송을 하고 六道 중생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의식을 마친다.

『지반문』이나 『중례문』의 경우는 상위와 중위의 성현들이 목욕하는 의식이 진행되지만 『결수문』에서는 하단에서만 목욕의식이 존재한다.<sup>60)</sup> 또 『중례문』과 『결수문』에서는 상·중·하위를 다 청해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상위부터 공양을 올리지만, 『지반문』에서는 상위와 중위의 경우 청해 목욕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공양의식을 진행한다. 이 모습은 의례의 대소와 상황에 의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수문』에서는 청해 모신 상위의 성현들에게 바로 공양을 올리지 않게 되니, 다탕을 올리며, ‘잠시 기다리십사’ 하는 의도라고 보인다. 지극히 한국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현재는 수록재를 설행하는 거의 모든 재장에서 상위·중위

60) 한국불교계에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일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싹 터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구미래,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한국정토학회, 제17차 학술대회 『조상신앙』, 2014), p.92.

61) 『결수문』에는 봉다탕(奉茶湯)이 나타나지만, 『중례문』(의총.2)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필자가 『결수문』을 한국의 정통의문이라고 보는 연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를 청하면 곧바로 공양을 올리고 있다.

## 2. 靈山 合編 儀文

### 1) 의문의 개요

영산 합편 의문이란 요점 위주 의문에 ‘<영산작법>과 가영이나 소문’ 등이 합편된 의문을 지칭한다.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1661), 『신간범음산보집』(1713), 『범음산보집』<sup>62)</sup> 등에 소재한 세 수록의문은 영산 합편 의문이다. 『작법절차』(1496) 다음에 편제된 『삼단시식문』도 수록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영산대회작법절차』 다음에 편제된, 영산 합편 수록의문은 <소례결수작법절차>와 <중례문작법절차>, <지반문작법절차>로 칭명되며, 『신간범음산보집』의 <영산단법>·<영산회작법> 이후의 영산 합편 수록의문은 <중례작법절차>·<지반작법절차>·<결수작법>이라고 칭해진다. 영산 합편 수록의문은 완성된 수록의문으로 현재에 선행되는 의문이며, 후대에 간행된 수록의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한국불교의 의문이 집성된 『석문의범』 소재 <수록재의><sup>63)</sup>는 수인은 없으나 『결수문』이 실려 있으므로, 요점 위주 의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록재작법차서>에 ‘대중이 착석한 다음 할향에서 고향계까지를 염송하고 설회인유편으로 들어간다’<sup>64)</sup>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영산 합편 의문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하지만 乞水를 위한 관음청 행법 등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요점 위주나 영산 합편 의문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기 힘들다. 현재 전북불교연합회에 전승되고 있는 『수록의문』<sup>65)</sup>의 편제와 절차는 전형적인 영산 수록재라고 할 수 있다.

62) 『영산대회작법절차』(의총2, pp.139~145); 『오종범음집』(한불전.12, pp.163~168); 『신간범음산보집』(의총2, pp.591~611); 『범음산보집』(한불전.11, pp.476~487).

63) 『석문의범』 상권(만상회, 1935/1939), pp.240~263.

64) 『석문의범』 상권, p.239.

65) 金春明, 『水陸儀文』, 全北佛教聯合會, 1988.

## 2) 의식의 次序

영산 합편 의문에 편제된 의문의 목차는 의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작법절차』(1496)에는 『삼단시식문』이 편제돼 있었지만 『영산대회작법절차』 다음에는 <분수작법>에 뒤이어, <소례결수작법절차> · <중례문작법절차> · <지반문작법절차>가 편제되었다.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에서는 <영산작법>과 영산 합편 수록의문 사이에 편제된 <분수작법>은 후대의 ‘범음집’의 보편적인 편제이다. 이것은 시련·대령을 선행하게 된 연유를 밝혀줄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영산 합편 수록의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범음집’들에는 의문집의 대체적인 차서가 <대령>→<분수작법>→<이운의식>→‘보청’ 이후 <영산작법>이 시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운작법의 하나인 시주이운 의식의 <시련의식>이 <대령> 앞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오중범음집』(1661)의 <결수작법> 구조를 보면, 齋 후에 <영산작법>의 초반의 囑香부터 고향계 합장계송까지 행하고, 乘法이 진령계송을 한 다음 요점 위주 수록의문의 첫 편인 ‘설회인유’편을 시작해, 전 수록의문의 진행에 필요한 제 법식과 3위의 가영과 고향 시식 계송이 추가돼 있다. 이어 사자단과 오로단 의식을 하고 상단·중단·하단을 청하고 자리를 권해드린다. 다음은 상단·중단에 공양하고, 하단에 시식을 한 다음 봉송하고 마친다. 하단까지 소청하고 난 다음 상단에 공양하는 모습은 『결수문』의 의식순서와 같다. 결국 17세기 이래 『영산대회작법절차』나 ‘범음집’계통에 소재한 수록의문은 수록제에 영산이 합편돼 새롭게 편집된 영산·수록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불교연합회의 『수록의문』은 최근 1988년에 필사되었지만 현대에 편찬되었다고 생각되기보다 당해 지역에 전승된 의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시련·대령·관육·괘불이운에 이어 <수록무차평등재의식>이라는 제명의 첫 순서는 <운수상단>인데, ‘영산작법’ 할향에서 고향계송까지를 편제하고 있다. 또 엄정팔방을 위한 의식은 요점 위주 『결수문』의 행법을

따르지 않고 영산작법의 관음청과 결수와 쇠정다라니를 통한 결계와 천수다라니를 활용한 엄정이 행해지는<sup>66)</sup> 등 정통 영산작법의식이 온전하게 행해지는 전형적인 영산 합편 수록재의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IV. 영산재와 수록재 비교

##### 1. 구조와 성격

영산재는 법석 가운데 <영산법석>의 <작법절차>가 <영산대회작법>, <영산회단법>의 명칭을 거치면서 현재의 영산재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영산작법>은 법석의례로서 영산회상의 교주를 청하여 육법공양을 올리며, 설법이나 경전(『법화경』)을 염송해 선왕·선후의 왕생극락을 구하였는데, 주로 재(점심) 전에 봉행된다. 오후에는 하단시식이 행해진다.

그런데 『영산대회작법절차』의 <영산작법> 이후에 편제된 <분수작법>이 『오종범음집』에는 보이지 않지만, 『범음산보집』에서는 <대령의> 이후에 나타난다. 이후에 <대령의>·<분수작법>·<이운의식>에 이어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에서의 <영산작법>이 행해지고, <재후작법절차>로 『결수문』식 영산 합편 수록의식을 완벽히 봉행하고, 곧바로 영산 합편 수록의문인 <결수작법>과 <운수단작법>을 다른 의문처럼 제시하고 있다.<sup>67)</sup>

결국 『범음산보집』의 <영산작법절차>는 사실상 온전한 <영산작법>으로 행하는 <영산재>에다가 온전한 <수록재>가 결합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문이 단순히 편제된 의문에 불과하던 실행된 의문이던 간에 온전한 영산재와 온전한 수록재가 합편된 수록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문을 ‘수록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영산재 수설대회소 疏文에 잘 나타난다. 하지만 순수한 수록재의문이나 <영산작법>이 합편된 수록의문이 영산재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66) 『水陸儀文』(全北佛敎聯合會, 1988), pp.9-11.

67) 『범음산보집』(한불전.11), pp.462-477.

시련과 대령, 조전점안, 하단시식 등이 함께 시설된 영산재는, 영산의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리고, 업장을 참회하고, 경전을 염송하며 깨달음을 이루려는 법석으로 자력의 수행의례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정성을 다해 찬탄과 예경, 봉청과 공양을 하는데, 최상의 장엄으로 봉행된다. 『영산대회작법절차』의 겉표지에 ‘공양문’이라고 표시돼 있듯이 영산재는 스스로 공양을 올리고 『법화경』을 염송하는 자기수행의례이다. 그런데 자신의 수행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수행공덕을 남에게 돌려 당일 재회를 연 이들의 왕생을 구해준다. 그러므로 정진을 통한 보시바라미의 실천의례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일체 고힌을 청해 시식을 하고 왕생극락을 돕기 위해, 상위·중위·하위의 존재들을 함께 청해 공양하고 시식하고 법문을 베풀어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추천의례인 수록재는 중국불교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수용되어 오랜 역사 속에 선행되었다. 의문도 중국불교의 의문을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한 『결수문』·『중례문』·『지반문』 등 요점 위주의 의문과 『영산대회작법절차』(1634) 이후 제반문과 범음집 등에 등장하는 <영산작법>이 포함된 <소례결수작법절차> 등으로 행해진다.

『범음산보집』 <결수작법>의 협주<sup>68)</sup>에 따르면, 오전에는 갓춘 ‘영산작법’이 봉행되고, 미시(오후 2시)나 신시(오후 4시)에 운수상단과 같은 간략한 ‘영산작법’을 하는 전통의 수록재가 봉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와 17세기경부터 확인되는 수록의문은 순수 수록재가 아닌 <영산작법>이 합편된 수록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단의 고힌들을 위해 봉행하는 수록재에 영산작법이 합편된 형태로 선행된 것은, 수록재에 함께 선행되었던 법석의 잔영이며, 동참자와 고힌에게 공덕을 쌓아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법계 고힌의 왕생극락을 위해 상·중·하 삼위의 4성6범을 무차로 청해 공양 올리고, 시식하는 한국불교의 수록재에는 법석의 <영산작법>이 결합된 의문

68) “齋前如上靈山齋後鳴鈸次喝香云.” 智還集, 『범음산보집』(한불전.11), p.476중.

으로, 의례 상황에 따라 대소로 선행되고 있다. 영산재가 공양문의 성격이 크고 시식이 적은 데 비해 『작법절차』의 『삼단시식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록재는 ‘시식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기수행적인 영산재와 달리 교화중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선행 목적

齋會를 여는 목적은 의식 서두의 疏文이나 재회 마지막의 祝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문은 영산재나 수록재에서는 ‘대회소’라고 명기돼 있다. 수록재나 영산재를 막론하고 예전 의문에는 의식이 행해지는 위치에 첩부되는 경우는 적고,<sup>69)</sup> 해당 의문의 뒤에 부록처럼 편철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다.<sup>70)</sup> 축문의 경우는 축원 云云이라고 표기돼 있다. 두 소문과 의문을 읽어 보자.

### 1) 疏文

① 修設大會疏 : 영산재의 선행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나 『영산대회작법절차』, 『영산회작법절차』 등에는 소문이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지만 후대 『석문의범』 <영산재>에는 대회소가 실려 있다.

들었나이다. 이 법사는 석가여래께서 처음으로 감로의 주문을 설치하고 면연대사가 도와 감로의 문을 열고, 양나라 무제가 신승을 만나 수록대재를 베풀었고, 이어 당나라 영선사는 의제스님으로부터 글을 전해 받아 저 유명계의 중생을 복되게 하셨나이다. ~ 이렇듯 수승한 법회임을 생각하며 무차회를 베푸니 향하의 모래는 셀 수 있어도 공덕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누구누구는 이 수록회는 머리에 대비심을 열어 이 추천의 때(49재일)에 이르러 대승법사 한 위와 병법 사문 한 분과 법사승단 멀리서 모시고 날을 택해 모처로 나아가 천지명양수

69) 『동문선』 권110~114에는 각종 소문과 도량문이 남아 있다.

70)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의총2), 『석문의범』(1935)이나 전북불교연합회의 『수록의문』(1988)에는 소문들이 합편돼 있다.

록대도량을 며칠 열어 세우고 불법의 가지에 의지하여 방우계를 깨끗이 하고 향과 꽃을 장엄하고 갖추고 글을 올립니다.<sup>71)</sup>

이 소문에는 수록재의 연기를 언급하며 (망혼의) 추천의 때를 맞이하여 법식을 아는 스님들을 모시고 어느 곳으로 가서 ‘천지명양수록대회’를 며칠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영산재> 대회소에는 영산재의 이름은 ‘천지명양수록대도량’이고, 도량을 열게 된 연유는 追薦을 위해서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 三寶疏에서도 “특별히 앞에서 말한 영혼의 추천을 위해서”<sup>72)</sup>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수설대회소나 삼보소를 통해서 재의 명칭이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추천의 때는 칠칠재를 의미하고, 특별한 영혼을 위한 수록재가 영산재라고 할 수 있다.

② 수록재의 設會因由 : 『결수문』과 『중례문』의 첫 편은 수록재회를 설행하게 된 인연과 경과를 설하고 있다.

無遮齋는 本願을 찾는 것이고, 돌아갈 곳[歸趣]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교법을 내리시고 양 무제의 慧式이 뒤에 추가되어 의범이 짜여 졌으니 천고에 規의 모범이요, 만령을 감싸주는 그늘입니다. 이것으로써 보살도를 행할 수 있고, 이것으로써 여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하는 법을 논하자면 三檀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이치를 상세히 보면 六度を 갖추고 있습니다. 양 황제의 꿈에 임금에게 중생을 구할 것을 애절하게 부탁한 것에 감응하여 그것이 大事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실로 가없는 공덕입니다. (이) 밤에 곧 큰 신심 있는 단월 모인(某人)이 ‘엎드려 某事를 위해’ 넓고 큰 원을 발하고 평등한 자비를 일으켜 수록의 殊科(특수 과목)를 따르고 의거하여 冥陽(유명계와 현상계)의 勝會를 세워 엮습니다. 시방의 여러 성인과 삼계의 여러 진군이시여, 구부려 가피를 내려 주시고 모두 다 원만하게 해주시

71) 『석문의범』상권, pp.118~119.

72) 『석문의범』상권, p.121. “特爲追薦前項靈魂

기를 엮드려 바라옵니다.”73)

『중례문』의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무슨 일을 성취하기 위해 ‘천지명양수륙승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영산작법>이 ‘특정 영혼을 위해서’라고 못 박고 있지만 수록재를 설행하게 된 연유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재회를 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祝文

① 영산재 : 『작법절차』(1496)의 마지막에는 축원이 보이지 않지만,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에는 아래와 같이 망축의 三祝이 등장하고 있다.74)

나는 받들어 위하는 선왕선후와 열위선가님이 [대중 함께] 서방의 안락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합니다.

나는 크고 작은 원을 맺은 이들과 기쁘게 시주한 이들과 연화비구 등이 엮드려 위하는 선망부모님들이 [대중 함께] 서방의 안락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합니다.

나는 각각 선망 부모님과 열명영가와 법계 망혼들이 [대중 함께] 서방의 안락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합니다.

물론 『석문의범』 등 현대의 영산재 축원에서는 재자가 추천하려는 특정 모인 영가와 영가가 제자가 되어 상세선망 사존부모 열위영가가 서방 안락찰에 왕생하기를 빌고 있음을75) 볼 수 있다.

② 수록재 : 특정 영혼을 위한 영산재에서와 달리 법계고혼들을 위해 재회를 베풀고 있는 수록재에서는 별도로 축원을 하지 않는다. 수록재의 발상지 중국에서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無遮’의 시식으로 수록재가 개설

73) 『結手文』(의총.1), p.623상.

74) 『靈山大會作法節次』(의총.2), p.135상. 願我奉爲先王先后列位仙駕[衆和]往生西方安樂刹; 願我大小結願隨喜施主與緣化比丘等伏爲先亡父母[衆和]往生西方安樂刹; 願我各各先亡父母列名靈駕兼及法界亡魂[衆和]往生西方安樂刹

75) 『석문의범』 상권, p.125. “願我今日齋者某人伏爲所薦亡某人靈駕 當靈伏爲 上逝先亡~”

되었다. 가령, 사호가 금산사 수륙이 성행한 것을 사모하여 사시에 수륙회를 열어 사종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던<sup>76)</sup> 것이나, 또 송나라 이후 전쟁 이후에 조야에서 항상 행하는 일종의 초도법회로 “지금 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한 사람의 스님께 재를 올리는 것도 오히려 무한한 공덕이 있는데, 더구나 시방의 삼보와 육도의 만령에게 널리 공양을 올리는 경우가 겠는가? 어찌 자신의 한 몸만 이익 되게 하는 것에 그치겠는가? 또한 은혜가 구족을 적서줄 것이다.”<sup>77)</sup>라는 입장에서 수륙재가 개설되었다.

특정 영혼의 왕생을 위해 개설된 영산재도 (『범음산보집』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수륙재의식으로 설행된 것은 공덕 쌓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 만령, 특히 고훈에게 공양을 베풀고 법문을 들려주는 수륙재는, 영산재와는 그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이래 <영산작법>이 합편된 수륙의식이 영산재(작법)에서 함께 설행된 것은 결국 수륙재로 공덕을 쌓아 그것으로 영산재 본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인다.

## V. 결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불교의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를 밝혀 보기 위해 두 재의 구조와 차서, 목적 등을 살펴보았다. 그간의 살핌을 통해 두 재의 성격과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산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영산재는 <영산작법>의 이칭으로 참법이나 『법화경』을 염송하는 <영산법석>의 절차로서, 적어도 16세기 이후에 국내에서 정형화되었으며, 선왕·선후의 기신일이나 칠칠재 등에서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영산의 부처님을 청해 공양[供養]을 올리고 경전을 염송하며, 아울러 하단에 시식을 하는 추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재가 추천을 목적으로 설행

76) 『佛祖統紀』 권33(T.49), p.321c.

77) 中國佛教協會 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2(知识出版社, 1982[1989]), p.384.

되었지만 영산재는 『법화경』을 염송하거나 예참을 실천하는 상구보리의 자력적인 수행의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법계의 일체 고향을 청해 음식을 베풀고[施食] 왕생극락을 빌어 주는 한국불교의 수록재는 일찍이 중국에서 성립되어 국내에 10세기경부터 개설되었으며, 그 의문이 발달과정을 겪은 영산재에 비해, 중국의 남북 두 계통의 의문을 당시 실정에 맞도록 요점만을 간추리거나 새로 편집돼 설행되었다. 이후 칠칠재를 수록재로 병행하면서 칠칠재 사이에 행해지던 법석이 수록재에 합편되는 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영산·수록재의 모습으로 병행되었다. 고향의 시식과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병행되는 수록재에 영산작법이 함께 설행되지만 기본적으로 수록재는 시식에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수록재는 상구보리의 측면이 강한 영산재와 달리 財施·無畏施·法施의 三檀이 베풀어지는 하화중생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법화경』 독송과 ‘공양’이 중심인 영산재와 고향의 ‘시식’이 중심인 수록재는 ‘상향’과 ‘하향’이라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역할이 보완된 형태로 설행되고 있다. 상향의 ‘공양’과 하향의 ‘시식’을 하는 영산재와 수록재는 ‘왕생극락을 위한 추천의례’라는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상호 역할이 보완되고 유사해져 ‘영산·수록재’로 불리게 되었다. 영산재에 하단 시식이 행해지고, 수록재에 영산법석의 양태가 행해지게 된 것은 곧, 처해진 상황에 對機的으로 對處하며 융합하는 역동성과, 끊임없이 불타의 本懷를 추구하려는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의례에 대해 선후와 상하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T. 『大正新修大藏經』

의총,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三聖庵, 1993.

한불진, 『韓國佛教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1993.

『태종실록』 권15, 권24.

『세종실록』 권9.

『法華三昧懺儀』, T.46.

『四明尊者教行錄』 卷第一, T.46.

『佛祖統紀』 권33, T.49.

『眞言勸供』, 의총.1.

『靈山大會作法節次』, 의총.2.

『新刊刪補梵音集』, 의총.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지반문』, 의총.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중례문』, 의총.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결수문』, 의총.2.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한불진 11.

〈禪門祖師禮懺〉, 한불진.11.

『五種梵音集』, 한불진.12.

印光 撰, 『水陸儀軌會本』, 中華民國 台北: 宏願出版社, 中華民國 94年.

中國佛教協會 編, 「中國佛教儀軌制度」, 『中國佛教』 2, 知识出版社, 1989.

安震湖 編, 『釋門儀範』, 卍商會, 1935/1939.

金春明, 『水陸儀文』, 全北佛教聯合會, 1988.

고영섭, 『한국불학사』, 연기사, 1999.

구미래,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 한국정토학회, 제17차 학술대회 『조상신앙』, 2014.

권기중, 『불교사상사연구』 상, 한국불교연구원, 2004.

金熙俊,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湖西史學』 30집, 湖西史學會, 200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한국의 수륙재』, 대한불교조계종, 2010.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판본고」, 『서지학보』 제37호, 2011.
- 심만춘,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 심상현, 『불교의식각론』Ⅲ, 한국불교출판부, 2001.
- 沈祥鉉, 『靈山齋 成立과 作法儀禮에 關한 研究』, 威德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1.
- 沈曉燮, 『朝鮮前期 靈山齋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 우진웅,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對한 研究」, 『서지학연구』 제50집, 2011.
- 이성운,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한국선학회, 2013.
- \_\_\_\_\_, 『한국불교의례체계연구』, 동국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李英淑,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동국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헤일명조, 「수륙재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제언」,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의 전승양상과 발전 방향』, (사)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한국불교민속학회, 2014.
- 洪潤植, 『佛敎儀式』, 國立文化財研究所, 1989.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성명서, 〈한국불교신문〉, 2013.5.4.일자.

◀ Abstract ▶

##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lationship of Yeongsanje and Suryukjae

Lee, Sung-Woon

(Lecturer,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When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was designated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13, there was controversy that the ritual was subordinate to Yeongsanje(靈山齋, Vulture Peak ritual). This essay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rites by researching related material and by collecting, classifying and analyzing relevant questions in The Collection of the Documents for Korean Buddhist Rituals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and the Compendium of Korean Buddhism(『韓國佛教全書』). The conclusion is summed up in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ly,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title of “Yeongsanje” was used. It was formalized into the procedure of Yeonsanbeopseok(靈山法席, Dharma seat at Vulture Peak) reciting Chambeop(懺法, Confessional ritual) or the Lotus Sutra of the Wonderful Dharma (『妙法蓮華經』, Saddharma Puṇḍarīka Sūtra) as another title of Yeongsanjakbeop(靈山作法, Vulture Peak rules of conduct) at least since the 16th century in Korea. It is the ceremony of Chucheon(追薦, praying for the repose of one's soul), praying for going to Nirvana after death on the anniversary or Chilchiljae(七七齋, weekly ritual for the deceased for seven weeks) of the late king and the late queen, inviting Buddha and making Gongyang(供養, offering) to Him at Vulture Peak and chanting sutras, and holding a banquet. It i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Chucheon but it also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religious discipline rites by one's own efforts to seek bodhi(enlightenment) above(上求菩提) such as reciting the Lotus Sutra or practicing Yecham(禮

懺, worship and repentance).

Secondly, Suryukjae, inviting all the dead and holding a banquet for them in the Dharma realm(Dharmadhātu) and praying for going after death to Nirvana, was established first in China and introduced to Korea as early as the 10th century. Compared with Yeongsanjae whose ritual program was formalized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ment, Suryukjae was constructed and performed by summarizing the mainpoint of both the north and south lineages of Chinese and compiling it anew so that it might suit the situation for those days. Since then, YeongsanSuryukjae (靈山水陸齋, Vulture Peak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has been formed and practiced reverently, going through the process that Beopseok(Dharma seat) served during Chilchiljae. It was incorporated within Suruykjae as Chilchiljae and was practiced reverently with Suruykjae. Though Yeongsanjakbeop is performed together during Suruykjae, the main purpose of Suruykjae is Sisik(施食, holding a banquet). Therefore, it can be the rite for saving sentient beings below(下化衆生) where Samdan(三檀, threefold alms-giving) is held, that is, Jaesi(財施, offering), Muoesi(無畏施, removal of fear) and Beobsi(法施, “giving the teachings of Dharma”).

Thirdly, although reading and reciting the Lotus Sutra and “Gongyang” are the main elements of Yeongsanjae and “Sisik,” for a lonely spirit of the deceased is of Suryukjae, and though each has an independent and distinct mode of “downward” for the latter and “upward” for the former, the complementary forms to each other are practiced as well. It is called Yeongsan Suryukjae(靈山水陸齋) as the one became similar to the other due to the common ground of “the ceremony of Chucheon praying for going to Nirvana after death for the deceased.” It demonstrates the universality and the distinctiveness of Korean Buddhism which pursues flexibility in dealing with a situation dynamically and the essential enlightenment of Buddha constantly that the upper Sisik is performed at Yeongsanjae and that Yeongsanjakbeop is practiced at

Suryukjae. Therefore, it might be meaningless to debate the order and the top and bottom of these two rituals.

Key Words : Yeongasnjae(靈山齋, Vulture Peak Ritual),  
Suryukjae(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Gyeolsmun(結手文, Making mudrās),  
Jungryemun(中禮文, the Ritual Program in epitome),  
Jibanmun(志磐文, the Ritual Program by Giban),  
the Procedure for the Rules of Conduct(作法節次),  
Youngsanhoi(靈山會, Vulture Peak Assembly)